

“추석 물가 잡아라” 농축산 성수품 공급 1.5배 늘린다



농림부, 육류·과일·채소 등 14개 품목 14만4000t 공급...할인쿠폰 450억 지원

추석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14개 품목 공급량을 평소 대비 1.5배 수준으로 늘린다.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기존 월 90억원에서 최대 450억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날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면 배추 1포기 가격은 793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4700원)보다 68.7%나 급등했다. 1년 새 무 1개 값은 200원에서 3730원으로, 69.5%(1530원) 뛰었다.

감자는 73.9%(100g당 230원→400원), 양파 13.5%(kg당 2000원→2270원) 등 가격도 크게 올랐다.

단 과일은 아직까지 저장물량이 소비되면서 사과 10개 값은 전년보다 16.1% 낮은 3만1900원, 배 10개는 30.3% 떨어진 4만1800원에 팔리고 있다. 축산물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돼지고기 1kg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19.0% 오른 5599원에, 달걀 30kg의 산지가격은 38.7% 상승한 4999원에 각각 형성돼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이달 18일부터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4개 성수품을 총 14만4000t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적인 출하량 공급량인 9만5000t의 약 1.5배에 달한다.

품목별 공급량은 ▲배추 5890t ▲무 4940t ▲사과 1만4000t ▲배 1만2000t ▲양파 3000t ▲마늘 300t ▲감자 4700t ▲쇠고기 2만1000t ▲돼지고기 6만1222t ▲닭고기 1만6153t ▲달걀 1035t ▲밤 160t ▲대추 12t ▲잣 120kg이다.

정부는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 2주차에 전체 물량의 40.7%를 공급한다. 또 추석 전 3주차에 31.4%, 추석 전 1주차에 27.9%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직매장, 전통시장 등 전국 2952개 유통업체가 참여한다.

정부는 행사 기간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기존 월 90억원에서 최대 45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행사 품목을 선정해 약 2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1인당 할인 한도

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축협·산림조합과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가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유통정보와 바로정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인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울러 추석 전 4주차인 오는 16일부터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성수품 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늘리기로 해 물가 반발이 예상된다.

양파 9만2000t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50%에서 10%로 낮추고, 마늘 TRQ 물량을 1만4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린다.

수입산 할당관세 적용 물량 소고기 10만t과 돼지고기 7만t, 닭고기 8만2500t, 달걀 가공품 6720t도 도입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

중기부, 12~26일 참여 기업 모집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에도 이를 받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정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

게 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된다.

특별약정서 전문은 12일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을 맺는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회장은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이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기반으로 혁신·성장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켄텍·전남테크노파크 지역발전 협력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는 11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과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과 함께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공유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력반도체, 그린수소, 차

세대 이차전지 등 에너지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등 5대 특화 분야를 내걸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전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술, 인력, 인프라의 공유체계 구축 ▲에너지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 현장학습 및 취업 연계 운영 ▲성과 공유와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한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전남본부-근로복지공단 협약

농어촌 건설현장 재해 예방·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1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농어촌 건설현장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기관은 안전한 삶터와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캠페인, 근로자 안전교육, 건설 안전 정보·인프라 공유 등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광주·전남 238지구 공사현장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도남 전남본부장은 "ESG 경영과 건설현장 재해 예방,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두 기관이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거래 '시들'

7월 거래대금 5조 그쳐...전달비 12% 줄어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광주·전남지역 7월 주식거래대금이 5조원대에 턱걸이했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7월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민들의 주식거래대금은 5조317억원으로, 전달(5조7166억원)보다 12.0%(-6849억원) 감소했다.

전국 거래대금도 395조원에서 344억원으로, 12.7%(-50조원)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거래대금을 시장별로 나눠보면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12.4%, 코스닥은 11.4% 감소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달 3조600억원에서 2조 6800억원으로 감소했고, 코스닥 대금은 2조 6400억원에서 2조3400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줄었지만 거래대금 비중은 0.73%로 전달보다 0.01%

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전남 상장법인 38개사(코스피 16개사·코스닥 22개사)의 7월 시가총액은 22조5688억원으로, 전달(22조3504억원)보다 1.0%(2184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총은 1206억원(-0.6%) 줄어든 반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시총이 3390억원(13.4%)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3.78(+42.90)
▲ 코스닥	832.15(+11.88)
↓ 금리(국고채 3년)	3.124(-0.030)
↓ 환율(USD)	1303.00(-7.40)



광주은행 신세계지점 이전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6번째)이 최근 서구 광천동 신세계지점을 광주 유·스퀘어 1층 영평문고 본관 옆으로 확장 이전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전한 매장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PB(개인 자산관리)룸을 신설해 중요 고객 상담을 강화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세계 개점 27주년 기념행사 다채

12~21일 생활전문관 행사·프리미엄 푸드마켓 기획전 등

오는 25일 개점 27주년을 맞는 (주)광주신세계가 다양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다.

이달 초 50억원을 투입해 8년 만에 식품관 새 단장을 마친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 중 1층 매장 확장 공사도 마무리한다.

광주신세계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개점 27주년 축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고객 감사 특가전'과 '생활전문관 3주년 행사', '프리미엄 푸드마켓 기획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광주신세계 가을·겨울(F/W) 신상 패션쇼'가 오는 20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여성 의류 10개·남성 의류 10개 브랜드

가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줄 예정이다.

행사 기간 광주신세계는 수량이 한정된 특가 의류 상품을 선보인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생활전문관은 올해 3주년을 맞아 12일부터 14일까지 1층 매장에서 '축하 상품전'을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주방기구, 가전, 침구 27종이 고객을 만난다. 참여 브랜드는 광주 침구업체 운현궁과 레노마, 세사, 피원홈데코, 포커시스 등이 있다.

지난 5일 새로 단장해 문을 연 '프리미엄 푸드마켓'(식품관)은 12일부터 18일까지, 19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을 나눠 먹거리 할인전을 연다.

목포 먹갈치와 감자, 복숭아, 목살 등 신선식품과 모듬조밥, 건강기능식품, 스타이크 등을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광주신세계는 12일부터 15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과 '푸드마켓 사은품'(럭키박스)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는 식품관 개신 공사에 이어 1층 부지 추가 임차를 통해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유·스퀘어(광주중합버스터미널)와 연결된 1층 부지로, 1081㎡(327평)를 오는 2033년까지 추가 임차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신규 해외명품 브랜드 매장과 대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특급호텔 건립이 무산된 부지 8618㎡에 들어선 아파트 견본 건물은 임대 계약이 끝나면서 이달 철거 공사를 마쳤다. 이 부지에는 1799명 규모 노상 주차장이 운영돼왔다. /백희준 기자 bhj@